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및 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김황기\*, 조성제<sup>1</sup>  
<sup>1</sup>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lial piety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Hwang-Ki Kim<sup>\*</sup>, Sung-Je Ch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및 효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O구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29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정의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과 부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효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연구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The test subjects were high school students from academic and vocational school from different districts of Seoul.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July of 2014 to 290 high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PSSWIN 18.0 program using a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other test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eriments were verif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First, communication with father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chool division, economic class, religion;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chool division, grade-level, academic performance, domestic discipline, and economic class. Second, the perception of filial pie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and with the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eenagers correlate with the higher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and should become a central material for policy.

**Key words** : communication, filial piety, teenagers, parents, perception of filial pie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가족제도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청소년의 탈선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및 효행의 상실로 인한 청소년 비행문제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범죄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의 경우 14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이 66% 증가하였고,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이 76%,

\*Corresponding Author : Hwang-Ki Kim(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5262-6773 email: hwangki50@naver.com

Received September 4, 2014

Revised (1st October 7, 2014, 2nd October 9,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14세에서 16세가 5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1],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사회가 서양문화와 정보화시대의 영향으로 급변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효(孝)문화, 인성과 가치관이 퇴색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효 교육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질서가 회복되도록 가정에서 효와 사랑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모인 사회와 국가는 정의사회가 될 것이며,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효 사상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효행 지도방안을 위한 이론적 틀을 다져야 할 때이다. 효를 더 이상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보기에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고 각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효(孝)' 교육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2]. 결국 효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고, 효 교육이 사회 곳곳에 널리 보급되어 청소년들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아버지가 학력이 높고,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위축, 공격성, 내재화 문제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 등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연령이 높고, 월 소득이 적을수록 문제가 많이 나타났[3]. 또한 부모-자녀가 놀이나 취미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 결과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더 개방적이었으며, 의사소통 및 자녀 비행은 부모와의 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변인이고 자기격려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8].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효 행동인 자기관리, 우애, 자율성, 공경, 의사소통, 감사,

신뢰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1]. 따라서 오늘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와 간섭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해주는 중고생의 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효사상과 가족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효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12,13]. 결론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효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질서가 회복되려면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 스스로 효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선행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연구는 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효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는 어떠한가.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대상자는 2014년 3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서울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80% 검정력, 독립변수 11개 및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자 160명을 표본크기로 실시하였다.

##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자의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다.

##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21개 문항, 효에 대한 인식 설문 25개 문항, 부모와의 의사소통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Korea Institute of Youth Policy[1],에서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문항은 성별, 학교,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종교, 가족형태, 부모직업, 등을 측정하였다.

### 2.3.2 평상시 효의 척도

효의 척도 조사도구는 Ko[15]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효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은 각각 ‘공순대부의 효’, ‘신체 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 등3개의 영역으로 19문항에 5점 만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 2.3.3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척도는 Barnes 외[16]가 개발하고 Min[17]이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등의 2개의 영역으로 16문항에 5점 만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신뢰성은 Cronbach  $\alpha$ 계수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와 같다.

[Table 1] The reliability verifying by area

Divis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Communica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6	.905
	Communication with mother	10	.839
communication with parents		16	.872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8	.808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6	.715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5	.722
Awareness of filial piety		19	.878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정교육과 경제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은 중위권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고, 동거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쪽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 직업이 회사원,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경제수준이 보통이 가장 많은 것은 중산층의 자녀들이 주로 일반 고등학교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 것은 아직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는 맞벌이 보다 외벌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49	61.1
	Female	95	38.9
School classification	Academic high school	121	49.6
	Vocational High School	123	50.4
Grade	1st Grade	158	64.8
	2nd Grade	7	2.9
	3rd Grade	79	32.4
School record	High	57	23.4
	Average	133	54.5
	Low	54	22.1

Home discipline	Conservative	25	10.2	
	Average	119	48.8	
	Democratic	100	41.0	
Economic level	Poverty	31	12.7	
	Average	189	77.5	
	Rich	24	9.8	
Religion	Buddhism	17	7.0	
	Christian	73	29.9	
	Catholic	15	6.1	
	No	135	55.3	
	Other	4	1.6	
Family forms(Multiple responses)	Parents	206	45.9	
	Single Parent	34	7.6	
	Brothers and sisters	186	41.4	
	Grandparents	16	3.6	
	Relatives or, welfare facilities	7	1.6	
Job	Father (No response = 20)	Professional	22	9.8
		Adults	95	42.4
		Simple labor job	2	.9
		Officials	14	6.3
		Teachers	1	.4
		Self Employed	37	16.5
		Housewife	3	1.3
		Sales and service jobs	12	5.4
		Other	38	17.0
	Mother (No response = 11)	Professiona	11	4.7
		Adults	40	17.2
		Simple labor job	10	4.3
		Officials	9	3.9
		Teachers	16	6.9
		Self-employed	11	4.7
		Housewife	80	34.3
		Sales and service jobs	21	9.0
		Other	35	15.0
Total		244	100.0	

### 3.1.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원활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상

대는 주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mmunication with parents

Divisions	Sub-factors	Mean	SD
Communica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3.42	.87
	Communication with Mother	3.48	.67
communication with parents		3.45	.62

###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종교,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와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의사소통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학년은 1학년 학생보다 2·3학년 학생이 더 좋았다. 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원활하였고, 가정교육은 자유롭고 민주적, 보수적, 보통 순으로 소통이 잘되었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 전문직/회사원/공무원/교사 순으로 의사소통이 잘되었다. 이 결과는 민주적인 대화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8]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소통이 원활하였다. 종교가 기독교·천주교인 학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하였다. 이 결과는 효에 대한 인식은 가정환경, 가족관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11]는 연구와 유의미하다.

셋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학년은 1학년 학생보다 2·3학년 학생이 더 잘되었다. 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좋았고, 가정교육은 자유롭고 민주적, 보통, 보수적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인 학생이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되었고, 어머니와 의사소통은 가정교육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이 가장 원활하였다.

[Table 4]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mmunication				Doctor and parent communication	
			Father		Mother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149	3.37	.87	3.43	.61	3.40	.58
	Female	95	3.50	.87	3.55	.76	3.53	.67
t(p)			-1.205(.229)		-1.356(.177)		-1.556(.121)	
division	Humanities	121	3.70	.84	3.70	.70	3.70	.61
	Vocational	123	3.15	.82	3.25	.57	3.21	.52
t(p)			5.162*** (.000)		5.456*** (.000)		6.630*** (.000)	
Grade	1st Grade	158	3.38	.90	3.40	.67	3.39	.63
	2nd and 3rd grade	86	3.50	.81	3.62	.66	3.57	.59
t(p)			-1.066(.287)		-2.443* (.015)		-2.231* (.027)	
School record	Low	57	3.31	.98	3.26 <sub>b</sub>	.57	3.28 <sub>b</sub>	.58
	Average	133	3.40	.90	3.51 <sub>a</sub>	.71	3.47 <sub>ap</sub>	.64
	High	54	3.59	.66	3.63 <sub>a</sub>	.63	3.62 <sub>a</sub>	.57
F(p)			1.571(.210)		4.651* (.010)		4.307* (.015)	
Home discipline	Conservative	25	3.45	1.03	3.30 <sub>b</sub>	.81	3.36 <sub>ap</sub>	.76
	Average	119	3.35	.81	3.31 <sub>b</sub>	.61	3.32 <sub>b</sub>	.53
	Democratic	100	3.50	.91	3.72 <sub>a</sub>	.64	3.64 <sub>a</sub>	.64
F(p)			.795(.453)		12.439*** (.000)		7.914*** (.000)	
Economic level	Poverty	31	3.06 <sub>b</sub>	.98	3.38 <sub>b</sub>	.54	3.26 <sub>b</sub>	.55
	Average	189	3.37 <sub>b</sub>	.82	3.42 <sub>b</sub>	.68	3.40 <sub>b</sub>	.59
	Rich	24	4.26 <sub>a</sub>	.60	4.03 <sub>a</sub>	.49	4.12 <sub>a</sub>	.47
F(p)			15.951*** (.000)		9.803*** (.000)		18.439*** (.000)	
Religion	Buddhism	17	3.13 <sub>b</sub>	.90	3.67	.58	3.47	.63
	Christian	88	3.62 <sub>a</sub>	.87	3.42	.78	3.50	.68
	Shamanism, other	139	3.32 <sub>ap</sub>	.85	3.49	.61	3.43	.57
F(p)			4.335* (.014)		.995(.371)		.379(.685)	

Father job	Professional/worker/civil servant/teacher	132	3.55	.79	3.50	.70	3.52 <sub>ap</sub>	.62
	Self-employed	37	3.63	.98	3.69	.68	3.67 <sub>a</sub>	.71
	Other	55	3.30	.74	3.39	.63	3.35 <sub>b</sub>	.49
F(p)			2.310(.102)		2.205(.113)		3.060* (.049)	
Mother job	Professional/worker/civil servant/teacher	76	3.47	.91	3.45	.81	3.46	.71
	Simple labor job/sales and service jobs	31	3.36	.89	3.60	.58	3.51	.56
	Housewife	80	3.53	.87	3.55	.57	3.54	.58
	Other	46	3.41	.69	3.37	.66	3.38	.56
F(p)			.361(.781)		1.057(.368)		.676(.567)	

\* p<.05, \*\*\* p<.001 Scheffe's test: a>b

### 3.1.4 효에 대한 인식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효에 대한 인식은 생육은공의 효,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순으로 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라고 하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은 어른에게 공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Awareness of filial piety

Division	Sub-factors	Mean	SD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3.72	.60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3.47	.61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3.75	.63
Awareness of filial piety		3.65	.52

### 3.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6]과 같다.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공순대봉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신체보존의 효는 학교 구분, 학년, 성적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육은공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첫째, 공순대봉의 효는 성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공순대봉의 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둘째, 신체보존의 효는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학년은 1학년학생보다 2·3학년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생육은공의 효는 성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는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잘하고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교육은 보수적인 가정의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의 효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효가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전체로 함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학교로 많이 넘어갔고 학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효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는 결과[14]와 일치한다.

[Table 6] Difference between the recognition of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Filial piety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Filial piety for bringing up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149	3.63	.61	3.45	.62	3.68	.61	3.58	.52
	Female	95	3.87	.55	3.51	.59	3.87	.64	3.75	.50
t(p)			-3.073** (.002)		-7.43(.458)		-2.318* (.021)		-2.512* (.013)	
Division	Academic high school	121	3.92	.51	3.69	.53	3.96	.60	3.86	.45
	Vocational High School	123	3.53	.61	3.26	.61	3.55	.60	3.45	.50
t(p)			5.519*** (.000)		5.909*** (.000)		5.355*** (.000)		6.767*** (.000)	
Grade	1grade	158	3.62	.61	3.39	.62	3.69	.58	3.57	.51
	2and 3dr grade	86	3.91	.54	3.61	.57	3.86	.70	3.80	.51
t(p)			-3.620*** (.000)		-2.750** (.006)		-2.092* (.037)		-3.473** (.001)	
School record	Low	57	3.61 b	.57	3.20 b	.62	3.58 b	.55	3.47 b	.49
	Average	133	3.70a p	.61	3.49 a	.59	3.72 b	.63	3.64 b	.52
	High	54	3.90 a	.56	3.70 a	.55	4.02 a	.62	3.87 a	.47
F(p)			3.595* (.029)		10.313*** (.000)		7.603** (.001)		8.730*** (.000)	
Home discipline	Conservative	25	3.96 a	.63	3.55	.71	3.99 a	.69	3.84 a	.61
	Average	119	3.62 b	.57	3.40	.62	3.63 b	.60	3.55 b	.50
	Democratic	100	3.79a p	.60	3.54	.57	3.83ap	.62	3.72a p	.50

F(p)			4.556* (.011)		1.603(.203)		4.850** (.009)		4.833** (.009)	
Economic level	Poverty	31	3.66 b	.65	3.33 b	.71	3.59 b	.61	3.54 b	.56
	Average	189	3.70a p	.60	3.46a p	.61	3.73 b	.62	3.63 b	.52
	Rich	24	4.01 a	.39	3.72 a	.43	4.14 a	.57	3.95 a	.33
F(p)			3.160* (.044)		2.951(.054)		5.996** (.003)		5.163** (.006)	
Religion	Buddhism	17	3.66	.75	3.29	.56	3.56	.75	3.52	.62
	Christian	88	3.79	.54	3.56	.55	3.88	.60	3.74	.46
	Shamanism, other	139	3.69	.62	3.44	.65	3.69	.62	3.61	.53
F(p)			.861(.424)		1.915(.150)		3.307* (.038)		2.360(.097)	
Father job	Professional/worker/civil servant/teacher	132	3.77	.57	3.54	.61	3.83	.61	3.71	.50
	Self-employed	37	3.84	.61	3.53	.62	3.80	.68	3.73	.56
	Other	55	3.61	.67	3.34	.65	3.61	.66	3.52	.56
F(p)			2.033 (.133)		2.126 (.122)		2.509(.084)		2.922(.056)	
Mother job	Professional/worker/civil servant/teacher	76	3.71	.57	3.55	.60	3.70	.61	3.66	.51
	Simple labor job/sales and service jobs	31	3.71	.62	3.49	.61	3.68	.57	3.63	.51
	Housewife	80	3.83	.60	3.49	.61	3.86	.67	3.73	.53
	Other	46	3.69	.63	3.39	.59	3.81	.59	3.63	.51
F(p)			.730(.535)		.681(.565)		1.140(.334)		.527(.664)	

\* p<.05, \*\* p<.01, \*\*\* p<.001 Scaffle's test: a>b

### 3.1.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정의상관이 있었다. 공순대봉의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관이 있었고, 신체보존의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관이 있었으며,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효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를 행하여야 할지를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 효 교육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는 결과[14]와 일치한다.

[Table 7] Correlation of filial piety on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parents

Division		Communication		Awareness of the effects	Filial piety			Awareness of the effects
		Father	Mother		filial piety for obedience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Communica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1						
	Communication with mother	.354***	1					
Communication with parents		.770***	.869***	1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477***	.392***	.519***	1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384***	.401***	.477***	.557***	1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530***	.452***	.588***	.589***	.579***	1	
Awareness of filial piety		.544***	.484***	.618***	.882***	.828***	.822***	1

\*\*\* p<.0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및 효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남학생은 아버지 학력이 높고,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었다고 하는 결과[3, 18]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권위적 태도에서 개방적 태도로 전환해야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공순대봉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신체보존의 효는 학교 구분, 학년, 성적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육은공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남학생은 육체적인 도움과 경제적인 원조를 하기 위한 효도가 높

게 나타났다는 결과[14, 19]와 유의미하다. 효에 대한 인식은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순대봉의 효와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정이상관이 있었다.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이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 중 통합과 순응 스타일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14, 20]과 유의미하다. 결론적으로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결과로 볼 때,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교육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효 교육프로그램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부모가 권위적 태도에서 개방적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효에 대한 인식 모델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부모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효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이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유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효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효 윤리와 효 인식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1] Korea Institute of Youth Policy. 2013.  
 [2] J. L. Lee, "The Significance of 'Hero' in Modern Society", Georgian Educati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3] J. H. Rho,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4] S. Y. Lee, "Promote filial piety and support enabled Stud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 81. 2012.

[5] J. H. Mo. "Influence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ports on Communication and Youth delinquency", Dayb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6] I. A. Kim. "The Effe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Mediated by Self-Encouragement", Cho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7] Y. C. Hyun. "Children's Behavior based on Consistency of the Parents-Children' Personality and Their Behavior", Je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8] J. J. Park. "A study of relation of the personality of adolescent with a communication type of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9] Y,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filial piety behavior which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and an effect which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s on filial piety behavior", Sung-san Hyo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4.

[10] H. K. Youn, "Study on the filial piety of children increases communication between the application and the child-parent",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11] I. G. Ryu, "Filial piety recognit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trai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ial Dissertation, 1997.

[12] S, C, Choi, "A Review of Filial Piety as a Welfare Thought for the Aged", Philosophy committed Vol.56. pp. 61-62. 2010.

[13] K, I, Han, "The Educational Program and Filial Piety Education for getouer Crisis of Korean Education", Youth and Cultural Filial piety, Vol.18. p. 102. 2011.

[14] H. S. Seol.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and Teaching Method of the Filial Piety Aspect",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9.

[15] K. M. Ko, "A Study of College Students on Filial Piety",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7.

[16] H. Barnes, D. H. Ols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17] K. S. Beom, E. J. Kim,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Management Styles on Young Adults'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Korean Familie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Communication Studies, Vol.55, No.4, 2011.

[18] H. Y. Min.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19] H, H,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Ability to Communicate Child's Giftedness",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of Graduate, PhD, 2014.

[20] M. J. Bae, S. J. Park,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and Family Valu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5, pp. 275-285.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5.275>

### 김 황 기(Hwang-Ki Kim)

[정회원]



- 2014년 10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교육학, 청소년 상담, 효 상담, 효 교육, 사회복지

###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방법,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